

라이브, 우리의 가족 · 이웃인 경찰에 전하는 '위로'



여운 남기는 대신 할 얘기 다 쏟아... '현장의 육박이' 경찰의 절규 처절 평범한 사람들 이룬 성취에 박수... 정의 · 사명감 · 연대의 소중함 일깨워

일선 지구대 경찰들의 실상을 담은 tvN 토일드라마 '라이브'는 종반에도 촘촘히 연결된 이야기로 여운을 남겼다. 할 이야기를 다해 더할 이야기가 없는 여느 드라마의 종반과는 완전히 달랐다.

지난 8일 방송된 최종회, 염상수(이광수)가 총기 사용 건으로 징계 위원회에 회부됐다. 염상수가 법인에게 총을 쓴 것이 과잉진압으로 둔갑했다 이때 오양촌(배성우)이 절규하듯 말했던 징계위원회의 증언은 이 드라마가 전하려는 메시지와 연결돼 불꽃처럼 남겼다.

"전 오늘부터 경찰로서 목숨처럼 여겼던 사명감을 잃었다. 지금껏 후배들에게 어떤 순간에도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라, 경찰의 사명감을 가져라라고 했다. 어떤 순간도 경찰 본인의 안위보다 시민을, 국민을 보호라고 수없이 강조하고 말해왔다. 지금 이 순간 그 말을 했던 모든 순간들을 후회한다. 내 인생은 국가, 조직 동료 누구도 보살펴주지 않는다.

우리는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현장의 육박이다. 이렇게 후배에게 가르치지 않은 걸 후회한다. 누가 감히 현장에서 20년 넘게 사명감 하나로 악착같이 버텨온 나를 이렇게 하찮고 비겁하고 비참하게 만들었는가. 누가 감히 내 사명감을 가져갔는가."

이 말에 힘이 실린 것은 지금까지 오양촌의 지구대 경찰로서의 활약상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노회경 작가의 치열한 취재가 느껴지는 에피소드와 캐릭터 덕분이기도 하다.

오양촌은 사건 현장에서 목을 아끼지 않았다. 부상도 여러 차례 당했다. 저렇게까지 경찰 생활을 해야 하나 할 정도였다. 현장을 지키다 장인 장모 등 처가의 결정적인 일에 참가하지 못했다. 그런 오양촌이 이런 말을 했다는 자책을 기억해야 한다.

오양촌은 징계위 참가 직전 부사수 염상수를 만나 "다음에 이런 상황이 생기면 도망가"라고 말했다.

'범죄 라이브' 현장에서 매뉴얼 대로 모든 과정을 거쳐 피해자가 생기면 말건 자신만 빠져나가는 경찰들로 가득하다면 사회가 유지되기 어렵다. 적어도 박봉에도 불구하고 사명감 하나로 일 하는 경찰관이 있어야 한다.

기하술 지구대 팀장(성동일)과 은경도 팀장(장현성)이 순경 한 명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경찰 고위층을 회색양모 옷 벗을 각오를 하고 이들의 비위가 활영된 동영상으로 협박(?)까지 하며 염상수의 징계를 막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때 기하술 대장이 이들 고위간부에게 했던 말이 기억에 남는다.

"무서운 경찰은 두 종류가 있다. 사명감 있는 경찰과 언제든 옷 벗을 수 있는 경찰"

일선 경찰의 사명감은 그 정도로 중요하다. 그 사명감이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사회 악을 없앨 수 있게 한다. 그런 거창함이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술 먹고 싸우고 마구 부수는

시민을 말려야 한다. 주취자가 토한 걸 치우는 현장 경찰을 보고 느끼는 바가 있었다.

결국 '라이브'는 일선 경찰들의 실상을 담아 우리 사회의 문제를 드러내고, 그들의 사명감을 되새기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었다.

'라이브'는 경찰 제복 뒤 숨겨진 인간적인 이야기를 담았다. 멋지게 사건을 해결하는 영웅이 아닌, 누군가의 가족이자 친구이고 이웃인 경찰들의 삶을 펼쳐며 안방극장에 뜨거운 울림을 전했다. 그 동안 디데 일하게도 다루지 않았던 지구대 경찰들의 모습, 다양한 사건 사고들 안에서 경찰로서,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인물들. '라이브'는 이들의 삶을 생생히 그려내며 시청자의 반응을 이끌어냈다.

노회경 작가는 "이 세상은 영웅 한 명이 아니라, 다수의 평범한 사람이 이뤄낸 것이다"면서 "정의, 동료애, 사명감, 아름다운 어른, 젊은이다운 젊음, 공감, 유대, 연대, 이해는 여전히 찬란하다고 말하고 싶었다. 타성에 젖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의 삶을 관찰하라는 것이 '라이브'의 의미"라고 전했다.

여자친구, 美빌보드 월드앨범차트 6위

그들 여자친구가 미국 빌보드 월드 앨범 차트에 입성하며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여자친구의 여섯 번째 미니앨범 'Time for the moon night'는 9일(현지 시각 기준) 미국 빌보드 월드 앨범 차트 6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앞서 여자친구는 해외 각국 아이튠즈 종합 앨범 차트에서 1위에 오른데 이어, 빌보드 차트에도 이름을

올리며 여자친구를 향한 글로벌한 관심을 실감하게 한다.

더욱이 빌보드는 여자친구의 신곡 '밤'을 집중 조명하며 "걸그룹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고 평가한 만큼 해외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단숨에 월드 앨범 차트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30일 여섯 번째 미니앨범 'Time for the moon night'로 컴백한 여자친구는 신곡 '밤'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여자친구의 신곡 '밤'은 발표 후 음원차트에서 순위가 점차 상승하며 각종 음원사이트에 최상위권에

안착 현재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빠르게 입소문 나면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한편, 여자친구는 SBS MTV '더 쇼'에서 컴백과 동시에 1위를 차지하며 성공적인 컴백 신호탄을 쏘아 올린 가운데, 신곡 '밤'으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간다.

'김제동 특투유2', 오는 29일 첫방송



7인 7색 멤버들의 매력이 담긴 '김제동의 특투유2'의 공식포스터가 공개됐다.

9일 공개된 JTBC '김제동의 특투유2-행복한가요 그대'(이하 '특투유2')의 2중 포스터에는 총 7명으로 구성된 전 출연진의 모습이 담겼다. '특투유2'는 청중들이 진솔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하는 토크콘서트 프로그램.

'행복한가요 그대'라는 새로운 부제 타이틀과 함께 시작하는 '특투유2'에서는 MC 김제동과 소녀시대 유리, 정재찬 교수가 출연하고 심어송라이터 커피소년, 제이레빗, 풀킴이 '행복DJ'로서 회차 별 주제에 꼭 맞는 '맞춤 선곡'에 나설

정.

첫 번째 포스터는 멤버 진원이 밝은 햇살이 환하게 비치는 북카페를 배경으로 한테 모여 앉아 있는 풍경을 담았다. 청중이 직접 행복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행복 여행'이라는 이번 시즌 콘셉트처럼 밝은 미소를 짓고 있는 멤버들의 표정이 눈에 띈다.

희한한 파스텔톤 컬러로 꾸민 두 번째 포스터에는 7인 7색 멤버를 지닌 멤버들의 개인 컬러가 담겼다. 본인만의 저서들을 들고 있는 정재찬 교수와 멜로디언을 꼭 쥐고 있는 제이레빗 정혜신 등 멤버 각자의 개성이 드러난 소품이 눈길을 끈다.

한편, 매주 화요일 밤 9시 30분에 방송되던 JTBC '패키지로 세계일주'를 무용야 떠나는 27일부터 일요일 밤 9시로 방송 시간을 옮긴다.

'패키지로 세계일주'를 무용야 떠나는 새로운 시간대에서 전세계 곳곳의 아름다운 풍경을 소개하며 주말 밤 편안한 휴식을 선사할 예정이다.

개성 넘치는 7명의 멤버들이 동행하는 JTBC '김제동의 특투유2-행복한가요 그대'는 29일 밤 9시 30분 첫 번째 행복 여행을 떠난다.

'기름진 멜로' 웃겼다가 짠했다가, 중독성 제대로

'기름진 멜로' 웃겼다가 짠했다가, 이 중독적인 맛에 빠졌다.

SBS 새 월화드라마 '기름진 멜로'가 색다르고 신선한 매력의 드라마로 시청자들을 사로잡고 있다. 어디로 뺨지 모르는 개성 강한 캐릭터들, 이준호, 장혁, 정려원의 능청스러운 열연, 이들의 미친 케미가 맞물려 재미를 선사하는 중이다. 5월 8일 방송된 '기름진 멜로' 3~4회는 웃기고 짠한 인물들의 이야기가 더해져 몰입도를 상승시켰다.

이날 방송에서는 서풍(이준호 분)과 단세우(정려원 분)가 최악의 하루를 보내는 모습이 그려졌다. 서풍은 자신이 일하던 호텔 중식당에서 쫓겨났다. 게다가 사랑 마저 그를 배신하고 떠났다. 결혼식 당일 아빠가 구속되고, 신랑이 도망간 단세우도 최악인 건 마찬가지.

지. 그러나 추락하는 상황에서도 슬픈 틈을 주지 않는 인물들의 팔끼는 웃음을 선사했다.

서풍은 석달희(차주영 분)에게 일방적인 이별 통보를 받았다. 힘든 일은 겹쳐서 왔다. 직장에서도 누명을 쓰고 좌천된 것이다. 오랜 시간 사랑했던 여자, 딸과 열정을 쏟았던 주방, 서풍의 배신감과 아픔은 칼 수 밖에 없었다. 여기서 석달희가 바람을 피운 상대가 서풍이 직장 상사라는 것에 화가 더욱 끓어올랐다.

서풍은 복수를 결심하고 두철성(장혁 분)의 사채사무실을 찾아갔다. 돈을 빌려 호텔 앞에 중국집을 차리려는 것이었다. "호텔 손님 똥 팔아오겠다. 똑같은 재료와 실력인데 10분의 1가격으로 팔겠다"라고 야심 찬 계획도 말했다. 이에 두철성은 자신의 건달 동생들에게 중

식 일을 가르쳐주는 조건을 내걸었고 두 사람의 거래는 성사됐다.

방송 말미 시련을 겪은 두 남녀 서풍과 단세우가 한강 다리 위에서 마주보는 모습이 그려졌다. 세 명이 너무 무섭다는 단세우. 이에 서풍은 "나도 당신 못지 않게 사는 게 무섭고 겁나는데, 죽을 때 죽터 떨까요"라고 포춘쿠키를 건넸다. 두 사람의 거들떠 안연, 그리고 포춘쿠키 속 적힌 글귀에 대한 궁금증을 남긴 채 '기름진 멜로' 3회가 마무리됐다.

분명 절망적인 상황임에도 이를 무겁지 않게 극복해내는 주인공들의 모습이 독특한 매력을 발산했다. 자신을 내쫓은 호텔 바로 앞에서 복수를 하겠다는 서풍의 페기 넘치는 행보, 세상이 무서워서 펜싱 투구를 쓴다는 단세우의 엉뚱

한 면모가 짠하면서도 웃음을 유발했다. 어디서도 본적 없는 캐릭터들의 신선한 매력이 심판 발휘됐다.

그런가 하면 서풍과 단세우의 빛이 된 두철성의 존재감은 강렬했다. 첫 눈에 반한 단세우가 결혼을 하려 앞장섰다는 사실을 안 두철성, "내일이 되면 날 가릴 거 없어요"라고 말하는 그의 고백은 진지해서 웃음을 자아냈다. 이에 단세우가 반응이 없자 바로 물러서는 모습, 그러면서도 단세우가 위험에 처하자 내서는 모습은 그의 대사처럼 시청자들을 순식간에 빠져들게 만들었다. 또한 서풍에게 중국집을 맡기는 모습은 향후 이들이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갈지 궁금하게 했다.

서풍, 두철성, 단세우, 불수록 중독되는 독특한 매력을 가진 인물들이다. 누구를 봐도 끝없는 캐릭터들과 이를 연기하는 이준호, 장혁, 정려원의 시너지가 더욱 기대된다.

오늘의 순세 2018년 5월 10일 목요일 (음력 3월 25일)

<p>▶ 쥐 조금만 인내하면 반드시 웃을 일이 생긴다. 금할수록 돌아가는 지혜가 필요할 때다. 일을 추진하는 것이 지금은 힘들지만, 역전할 기회가 엿보인다. 사, 오, 오 성씨 부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대화하라.</p> <p>▶ 돼지 진실한 마음으로 노력한 사람에게 기쁨이 찾아오는 날이다. 나만 고독한 것 같겠지만, 주위 많은 사람이 외로워한다. 웃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 7, 8, 9월생 노란색, 미색은 멀리하는 것이 일하는 데 희망을 주고, 심신을 피로에서 벗어나게 한다.</p> <p>▶ 호랑이 의연한 자세로 적절할 때를 기다리면 행운이 오고, 모든 것이 서서히 풀린다. 경거망동하면 주위 사람들이 멀어지니 자신을 분명히 하라. 2, 4, 6월생 파란색 옷과 동쪽이 길하다. 투기적인 것은 생각하지 말라.</p> <p>▶ 닭 내 처지를 비판하면 대인관계에서 자신감이 상실되고, 충분히 승산 있는 계획에도 착오가 생긴다. 매사 긍정적인 웃음이 나를 좋은 방향으로 인도한다. 세상일은 아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애정은 마음대로 안 되니 속상하다.</p>	<p>▶ 물고기 옳은 판단력으로 실속 없는 약속을 배제할 때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 2, 3, 5월생 도전한 일이 있다면 좌절하지 말고, 헤쳐나갈라. 당신이 방향하는 동안 가정에서 자식이 이탈하려 한다.</p> <p>▶ 돼지 걱정하지만 말고 대답이 나올 언행을 도모하라. 모두가 내 후원자가 될 수도 있고, 적이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7, 8, 9월생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나와 명예를 지킬 수 있다. 순간의 즐거움만 추구하다 큰코다칠 수 있다.</p> <p>▶ 양 주위에서 아무리 만류해도 한 가지 일에 빠져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 할 때가 있겠다. 사, 비, 트 성씨 세상이 웃음바다가 돼도 나는 웃음을 잃은 지 오래다. 애정 문제에 시달리는 탓이다. 2, 7, 10월생 사업적으로 서서히 풀린다.</p> <p>▶ 돼지 새로운 것을 찾더라도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지 말라. 지혜롭게 처신해야 한다. 6, 7, 10월생 투자한 만큼 이익이 오지만, 용기가 부족한 시점이다. 7, 8, 9월생 귀인이 나타나니 믿고 따르라. 복쪽 닭, 말미와 인연을 잘 맺으면 좋다.</p>	<p>▶ 물고기 내 주장만을 피력하려 하면 상대는 나를 외면한다. 2, 5, 8월생 내 단점을 인식하고 온화한 대화를 이끄는 화술을 스스로 터득하라. 극단적인 언행으로 나오려는 상대가 있어도 끝까지 참으며 들어주는 배려가 필요하다.</p> <p>▶ 닭 보기에 대단히 화려하지만, 기초공사가 부실하다. 욕심부리지 말고 내실을 기하라. 4, 6, 12월생 전진하는 것보다 작전상 한 걸음 후퇴하는 두뇌가 필요하다. 운수업, 서비스업은 길하나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 금전관리가 필요하다. 늦은 밤 운전은 조심하라.</p> <p>▶ 양 사소한 일로 주위와 다툴 수 있다. 이기적인 사고보다 상대를 존중하며 이해할 줄 알아야 사업에도 좋다.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갖고, 감정보다 이성을 앞세워야 훗날 웃음을 짓는 계기가 될 듯하다. 1, 7, 9월생 장지갑이 지출을 막는다.</p> <p>▶ 돼지 명확하지 않은 일에 뛰어들지 말라. 순리대로 따라야 한다. 여행하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 내 맡은 책임을 지고, 주어진 임무에 전력하라. 1, 7, 10월생 7, 8, 9월생 화합하면 만사형통한다. 애정은 한길만 찾으라. 진실 없으면 사랑도 멀어진다.</p>
--------------------------------------------------------------------------------------------------------------------------------------------------------------------------------------------------------------------------------------------------------------------------------------------------------------------------------------------------------------------------------------------------------------------------------------------------------------------------------------------------------------------------------------------------------------------------------------------	----------------------------------------------------------------------------------------------------------------------------------------------------------------------------------------------------------------------------------------------------------------------------------------------------------------------------------------------------------------------------------------------------------------------------------------------------------------------------------------------------------------------------------------------------------------------------------------------------	---------------------------------------------------------------------------------------------------------------------------------------------------------------------------------------------------------------------------------------------------------------------------------------------------------------------------------------------------------------------------------------------------------------------------------------------------------------------------------------------------------------------------------------------------------------------------------------------------------------------------------------------